| 현불 논단 |

자기 내면으로 '로그인' 하자



황수경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마음 속 분노 · 원망 · 시기심이
모든 전쟁 · 테러 · 범죄의 원인
비폭력 대화, 내면 보기 기반

참 리더, 타인 내면과도 소통
우리 본질 안에 해답 존재해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기 위해
수행 통한 마음 폭력 줄이길
자기 마음부터 먼저 검색하자

인도의 영적 스승 크리슈나무르티에게 한 청년이 질문을 했다. 자신은 세계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당신부터 전쟁을 멈추시오. 당신 내면에 모든 전쟁의 원인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마음 속의 분노, 비판, 원망, 좌절, 시기심, 두려움 같은 폭력적인 마음들이 폭력적인 언행을 가져오고 결국 전쟁, 테러,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전쟁이 싫다면 전쟁의 원인, 마음 속의 폭력부터 제거하라고 했다.

비폭력 대화 교육으로 유명한 마셜 로젠버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 비난, 무시, 명령, 공격 등 폭력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범죄의 가해자-피해자는 물론, 전 세계의 분쟁지역, 전쟁을 치르는 적대적인 집단 간에 비폭력대화를 성사시켜 오곤 했다.

서로 원수같은 개인과 집단들이 비폭력대화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치유가 실제로 일어났다. 바로 상대의 내면을, 마음을 보도록 했기 때문이다. 로젠버그는 비폭력적인 대화를 하려면 각자 자기 내면의 '신성한 에너지'와 연결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신성한 에너지란 누구에게나 있는 존엄과 사랑과 같다고 한다. 그 사랑 가득한 에너지를 다르게 표현하면 불성이고 참나일 것이다.

미국 MIT 대학의 오토 샤머 교수는 리더십 4.0시대에 리더가 되려면, 마음 속 내면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도 내면의 공간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리더십의 기법이나 방법 이전에 본질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는데, 우리의 본질은 결국 붓다인 것이다.

한 중학교 선생님은, 지난 몇 년간 인성교육을 강조하며 인성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교육해 보면 대부분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교재 내용이 학생들의 근본적인 인생관, 자존감,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 등은 그대로 둔 채, 겉핥기식 방법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직 성적만을 강요하고 성공하기 위해 무조건 대학에 가라는 학력주의, 과도경쟁, 사람을 생명으로 존중하기보다 능력과 돈으로만 차별하는 물질주의에 우리 학생들은 물들어 있다. 잠시 몇 번 좋은 말을 해 보고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라는 교육은 아마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불교 상담 강의를 하는 필자는 다양한 상담자 교육생들을 만나면서 상담이론이나 기법보다는 상담자의 가치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상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 상담자는 자기마음부터 치유해야 한다고 한다. 상담에서 중요한 말도 마음에서 나온다.

팔정도의 정어(正語)는 정견(正見)에서 시작되고, 사섭법의 애어(愛語)도 배려하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음과 인성에 관련된 교육은 불교의 가치관, 인간관에 기반하여 근본적인 마음과 태도를 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중생심을 그대로 가지고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대승보살의 마음과 태도를 갖출 수 있게 하는 다른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범죄가 줄어들고, 한반도에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평화가 도래하려면 정치적,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명상, 참선 등을 통해 우리 내면의 불성에 연결하고 마음 속의 폭력을 줄이는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남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기 전에 지금, 각자 자신의 마음부터 먼저 검색해보면 어떨까. 온 국민이, 전 세계인들이 내면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에 로그인해서 대승보살의 육바라밀로 정진해가길 발원한다.

特별기고

통일 포교불사 제언

남북불교, 정기법회로 통일 물꼬를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북미정상회담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한 번의 회담으로 구체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일이다. 그럼에도 70년 가까이 적대적 관계에 있던 두 나라의 정상이 처음으로 악수를 나눈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가 긴장완화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남북과 미국 및 중국 등 4개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정상회담과 합의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개혁개방 정책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다가 개혁개방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과 베트남이다. 이 두 나라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종교를 철저하게 탄압하였지만 1990년대 초부터 종교를 수용하였다. 공교롭게도 중국과 베트남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불교이다. 양국은 정책적으로 불교 사찰을 복원하여 관광자원화하였다. 그 결과 불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출가자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고,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면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종교활동을 용인하는 일이다. 베트남이나 중국은 내부적으로 국민들의 종교 활동을 인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선교활동은 적극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북한도 이와 같은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재의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종교단체가 활동 중이다. 불교도 조선불교도연맹이 결성되어 있고 세계불교도우의회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1989년도에는 15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팔만대장경 해제본을 한글로 번역 출간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한불교의 저력을 고려하여 본다면 남측의 종단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과의 공식적 관계를 복원하고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의 불교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만들고 이 단체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실무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남북의 불교계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정기법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할 일을 찾는다면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대도시에 폐사된 사찰을 복원하거나 도심포교 사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60여개의 사격을 갖춘 사찰이 남아 있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북한 불교계와 각 사찰들이 오랫동안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지역 사찰들이 수행과 포교도량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출가 수행자와 재가 전문 종무원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에 불교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를 바란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한 남북의 불교계가 서로 합심 협력함으로써 효과적인 불교 발전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社說

남북불교, 공동체 복원 잊지 않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나 CVID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만 실제 두 정상이 만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약속한 것이 갖는 의미에는 이견이 없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발표한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6.12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경색됐던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단절된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금강산 유점사 복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계평화재단 이사장 천담 스님의 방북을 통일부가 승인하는 등 민간교류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 등 각 종단 대북지원단체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문호가 열릴 대북교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어진 교류 단절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지진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서둘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놓쳐선 안 되는 가치가 바로 '공동체 복원'이다.

남북불교계가 경색국면에서도 어떻게든 교류를 이으려 했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단순히 성과를 내거나 특정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 오랜만에 불어온 남북관계 훈풍에 최우선 가치가 퇴색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주위의 비판은 겸허히 듣되 무엇을 위해 교류하는지 불교계가 되새겨야 한다.

조계종 승가교육 환경 변화 필요하다

출가자 감소는 한국불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조계종 교육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한해 출가자 200명 선을 유지됐지만 2016년에는 157명, 2017년에는 151명으로 줄었다. 올해에는 더 사정이 나빠져서 120명대 유지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출가자 감소를 막기 위해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출가자 모집 공고, 출가 상담사 운영 등 다양한 출가 장려 사업들을 펼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이 같은 출가자 감소는 당장 조계종 승가교육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 동국대 · 중앙승가대 · 사찰승가대학 · 기본선원 등 기본교육기관 내 학인 감소가 그것이다. 18개 기본교육기관 중 상당수의 기관이 급격히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는 오는 7월 12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승가교육 개선방안'을 주제로 교육종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자리에서는 조계종 내외 교육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해 기본교육기관 · 학인 정원 · 학제기간 조정과 교육방법 개선 등이 중점 토의될 예정이다.

기본교육기관과 학인 정원 축소 · 조정하는 것에는 일선 기관들의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교육원이 나서서 문제를 수면위로 올리는 것은 종단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도 변했다. 이에 따라 출가 · 교육 환경도 변화해야 한다. 승가교육 변화를 위한 치열하고 건실한 토론이 7월 12일 열릴 세미나에서 이뤄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귄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